

CLASSIFIED
DOCUMENT: T-600

CLASSIFIED



CLASSIFIED

T-600
MANUAL

식스뷰 T-600 트레이딩 파일럿

감정을 지운 자본주의 영공의 지배자

메타파일럿 썬의 전쟁 전술 매뉴얼

중력 9G보다 무서운 계좌 -30%의 중력



CLASSIFIED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편의 전장(주식시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마우스 클릭 한 번이 미사일 발사 버튼이 되어 자본이 공중 분해되거나 복제되는 곳.

▶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도박꾼의 티를 벗고, HTS 각퓔에 탑승하라.

생존을 위한 절대 규칙: 식스뷰 T-600 프레임워크

Spec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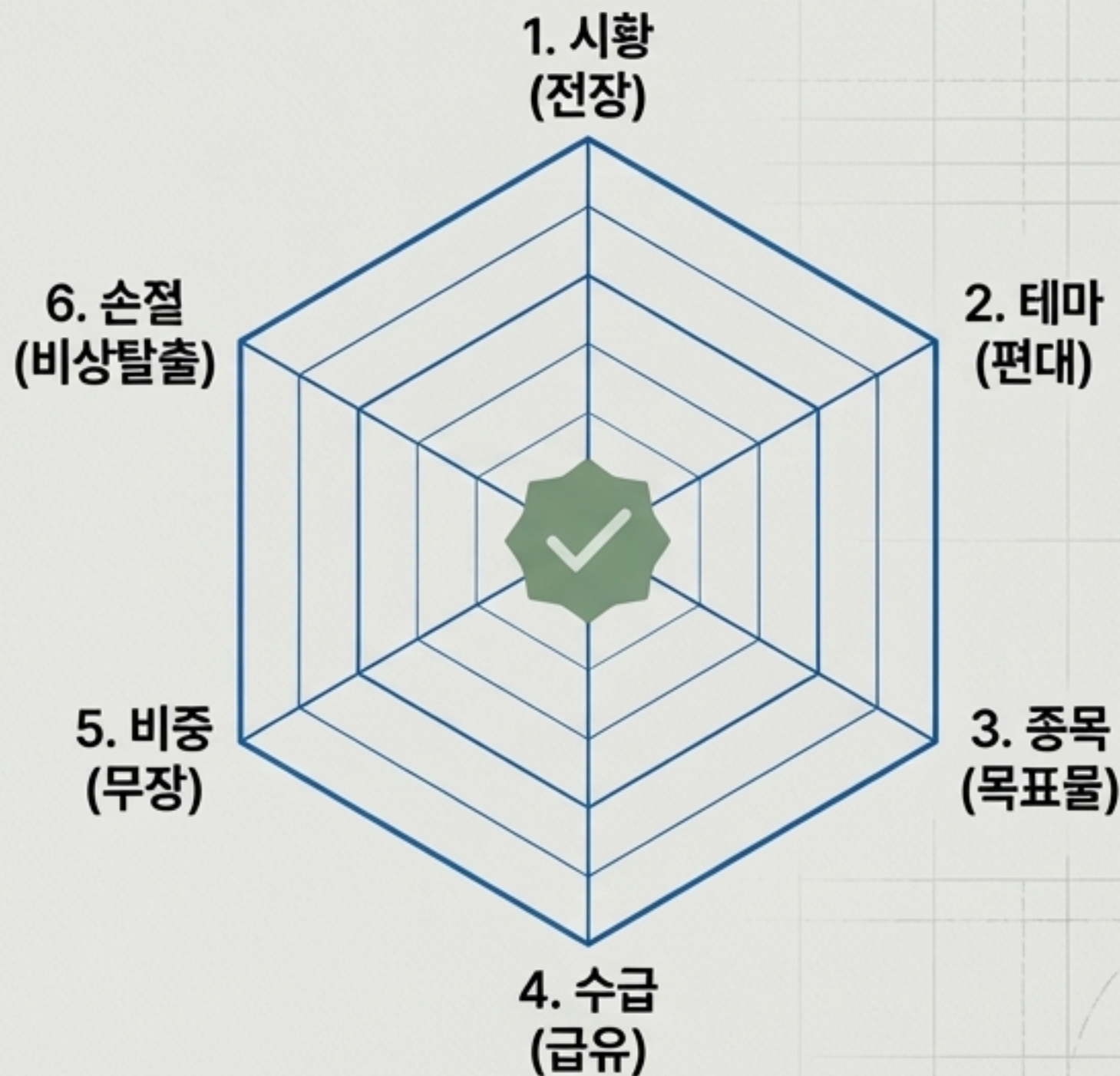
[T-600 제원]

T : Target (표적)

T : Time (시간)

T : Training (훈련)

Payload (화력 한도): 600만 원 (예수금)



경고: 단 하나의 관점이라도 'Clear' 상태가 아니라면 방아쇠를 잠가라.

CLASSIFIED

CLASS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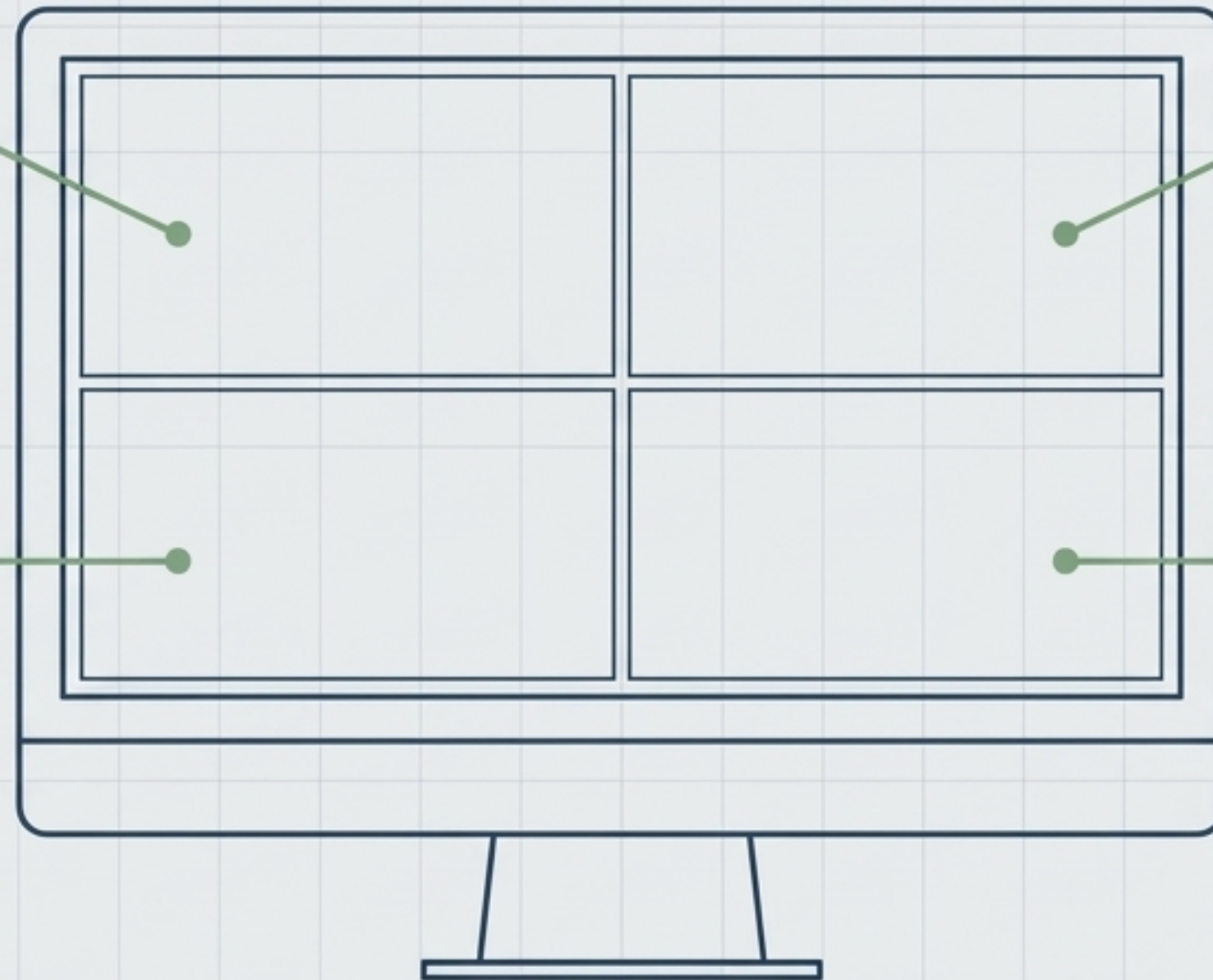
T-600 MANUAL

CLASSIFIED

출격 준비 [1/2]: 모니터 #1 메인 화면과 방아쇠 (PFD)

기상 리포터 (시황 창)
오늘 영공의 날씨 파악
(나스닥, 수급 동향).

주식 종합 차트 (고도계)
적기의 고도와 속도 추적.
대장기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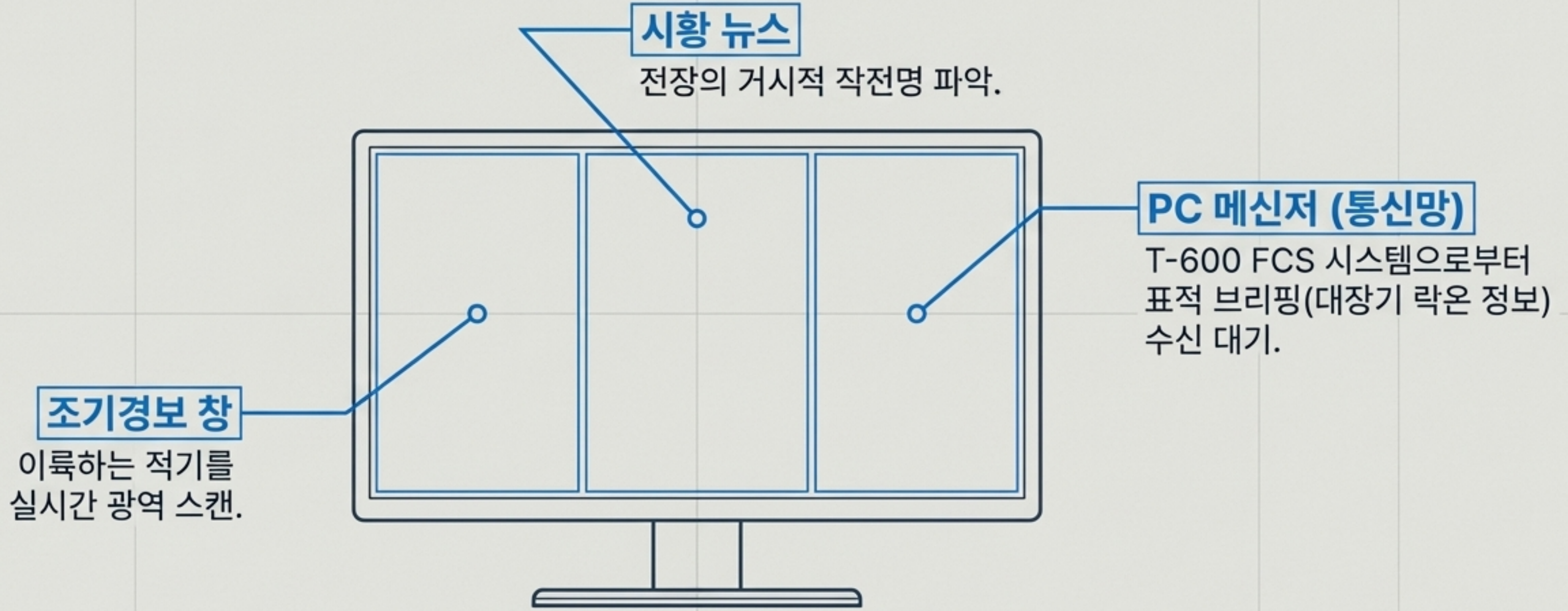


호가창 (방아쇠)
미사일 발사 버튼.
직접 교전을 위한 조준경.

계좌 잔고 (탄약고)
현재 남은 무장과 연료 상태.

직접 교전을 위한 주 비행 계기판. 이 시야 안에서 모든 타격이 결정된다.

출격 준비 [2/2]: 모니터 #2 워맨 및 위협 경보기 (T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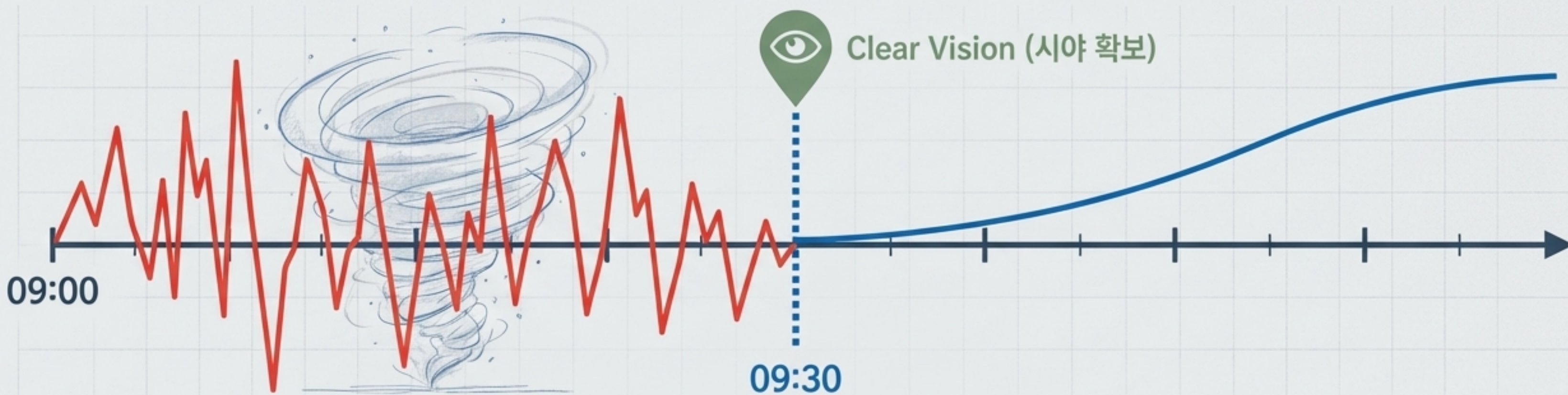


**1번 모니터만 보면 시야 밖 전장을 놓친다.
먼 거리의 적을 탐지하는 전술 상황판.**

타임라인 전술: 09:00의 흙먼지를 피하라

T-600 MANUAL

T-600 MANUAL



[개싸움 구간]

채프와 플레이어가 난무하는 야생마들의 시간.
 방향성 없이 요동치며, 잘못 올라타면 그대로 추락한다.
 방아쇠를 잠그고 대기하라.

[시야 확보 구간]

전장의 흙먼지가 가라앉고, 그날의 진짜 작전명과
 거대한 대장기(Target)가 레이더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이때 교전을 시작한다.

표적 식별: 종이비행기와 대형 폭격기 구분법

[가짜 추력 / 엔진 RPM]



기준: 거래량 (Trading Volume)

특징: 1,000원짜리를 100번 사고판 요란한 껍데기.
돈이 몰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깡통 기체.

[진짜 추력 / 애프터버너]



기준: 거래대금 (Trading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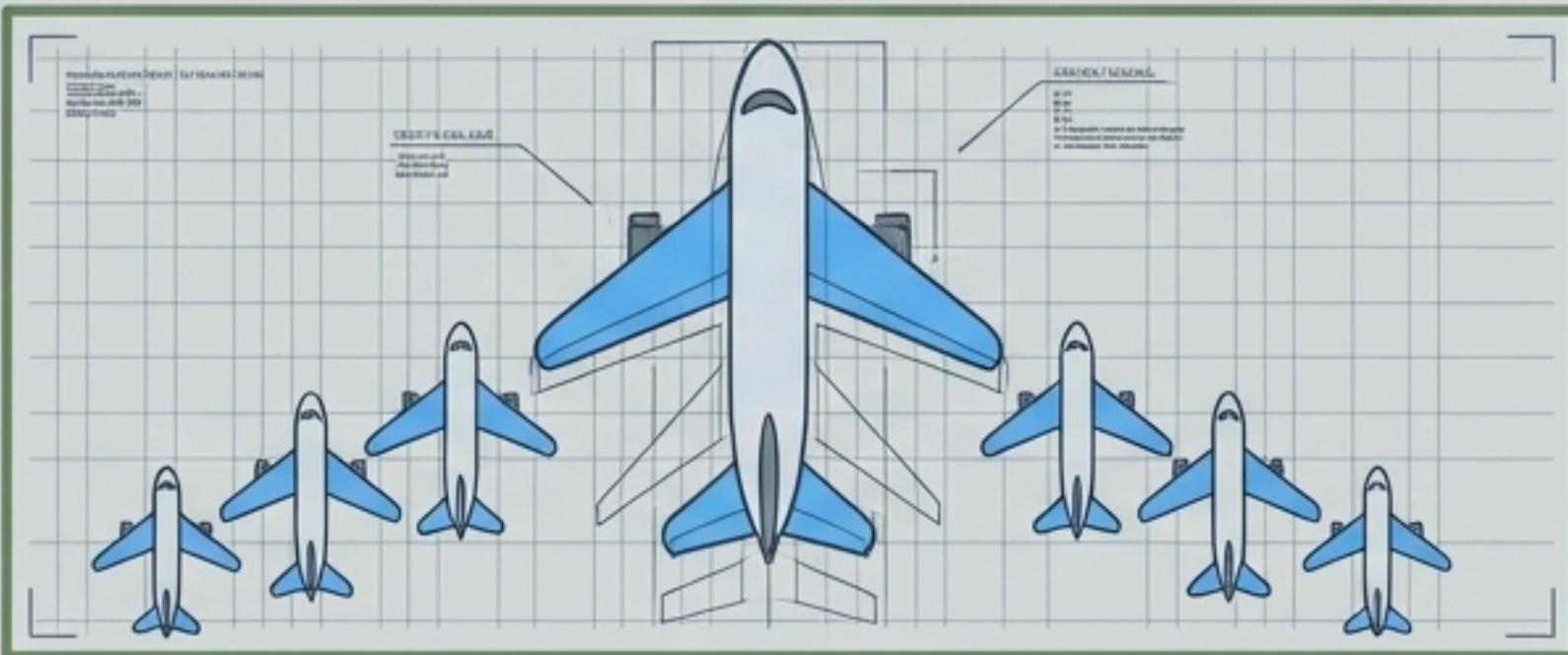
특징: 큰손들이 수백억을 쏟아붓는 진짜 폭발력.
기체를 성층권까지 밀어 올리는 동력.
(당일 거래대금 상위 레이더 필수 시청)

편대 비행 식별: 대장기(적토마)는 혼자 날지 않는다

[독고다이 - 위험 (단독 비행)]



[적토마 편대 - 락온 (테마/업종 동반 상승)]



[비행 전 확인 수칙]

Rule: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지 마라.

이 기체가 나 홀로 비행 중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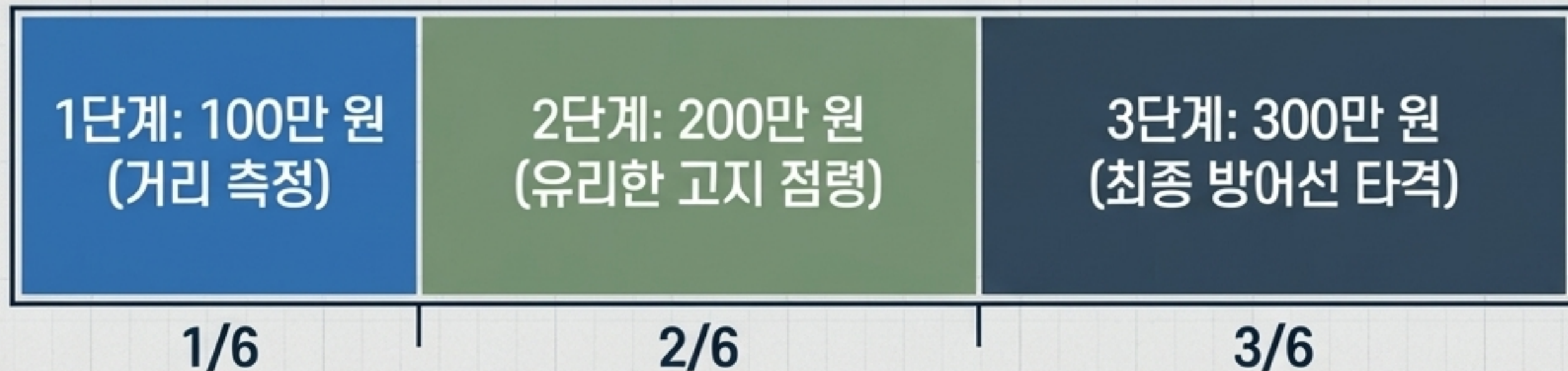
같은 테마, 같은 업종으로 묶인
윙맨(동료 종목)들을 이끌고 함께
고도를 높이고 있는가?

결론: 뉴스를 동반하며 편대를 이끄는 놈이 진짜 대장기다.
HUD 조준경에 올리고 락온(Lock-on)하라.

교전 수칙: 탐욕의 전탄 발사(몰방)를 금지한다

타겟이 보인다고 전 재산을 한 번에 쏘는 것은 회피 기동에 대처할 수 없는 자살 행위다. 베테랑은 철저히 화력을 통제한다.

총 탄약: 600만 원



1단계 타격: 장거리 미사일 '암람(AMRAAM)'

CLASS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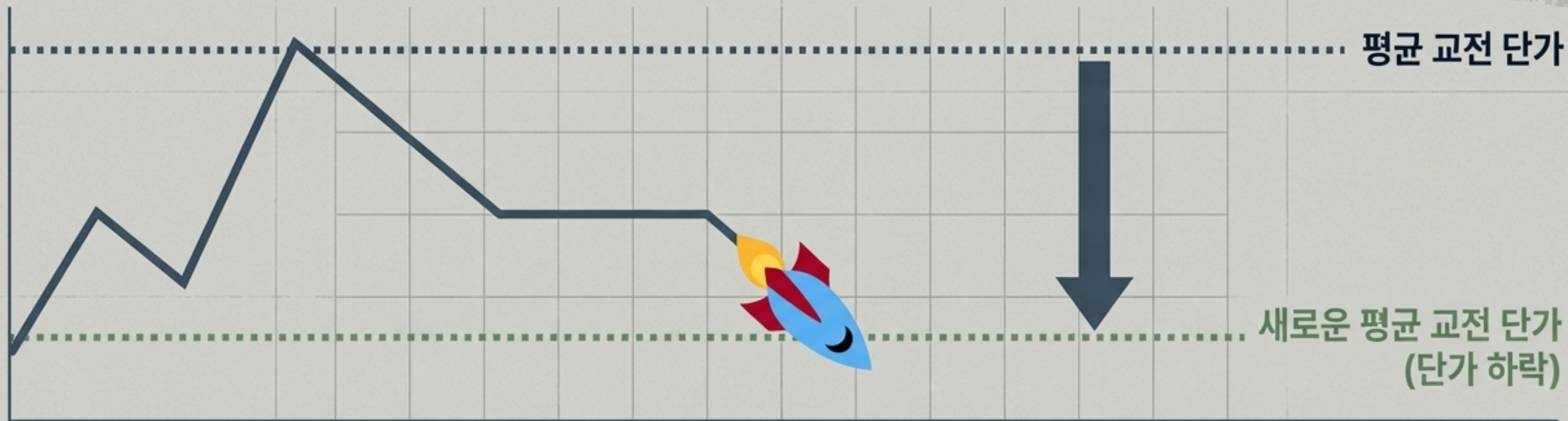
투입 화력: 100만 원 (정찰 타격)

전술 상황: 적토마가 고도를 급격히 높여 거리가 멀고 타겟의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

목적: 진짜 계속 상승할 놈인지 간을 보며 1차 진입. 타격 직후 적기가 회피기동(하락)을 시작해도 타격이 적다.

CLASSIFIED

2단계 타격: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CLASS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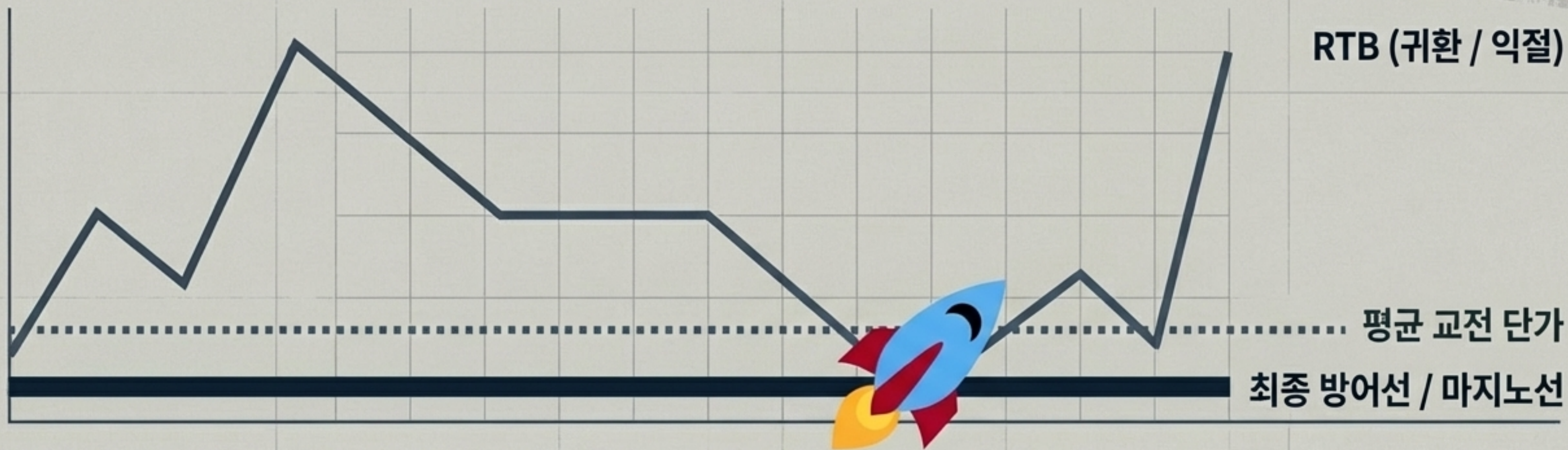
투입 화력: 200만 원 (본격 추적)

전술 상황: 적기가 숨을 고르며 목표 고도 근처로 내려와 거리가 좁혀진 상태. 엔진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

목적: 추가 타격을 통해 평균 교전 단가를 극적으로 낮추며, 승률이 높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한다.

3단계 타격: 근접 도그파이트 '발칸 기총'

CLASS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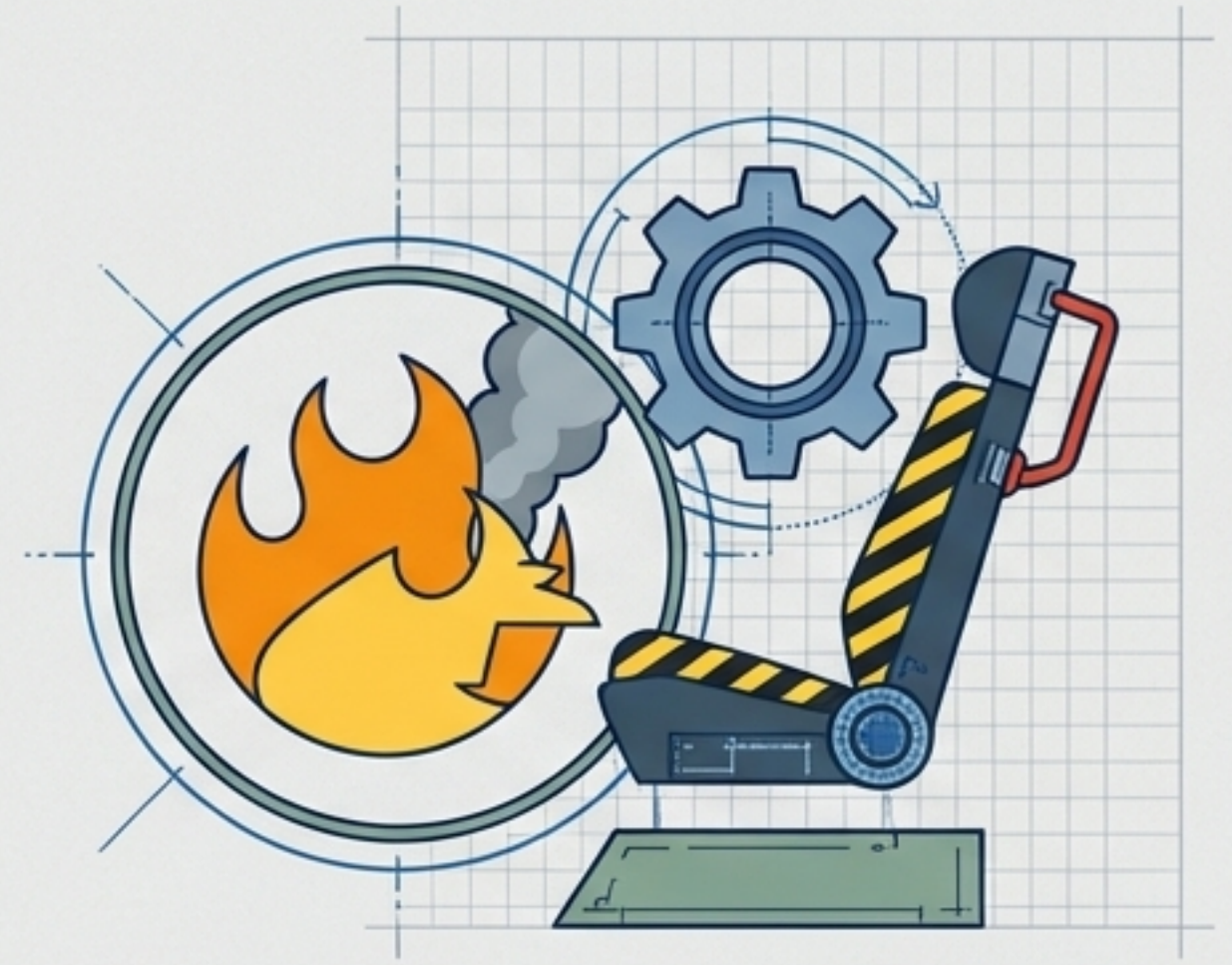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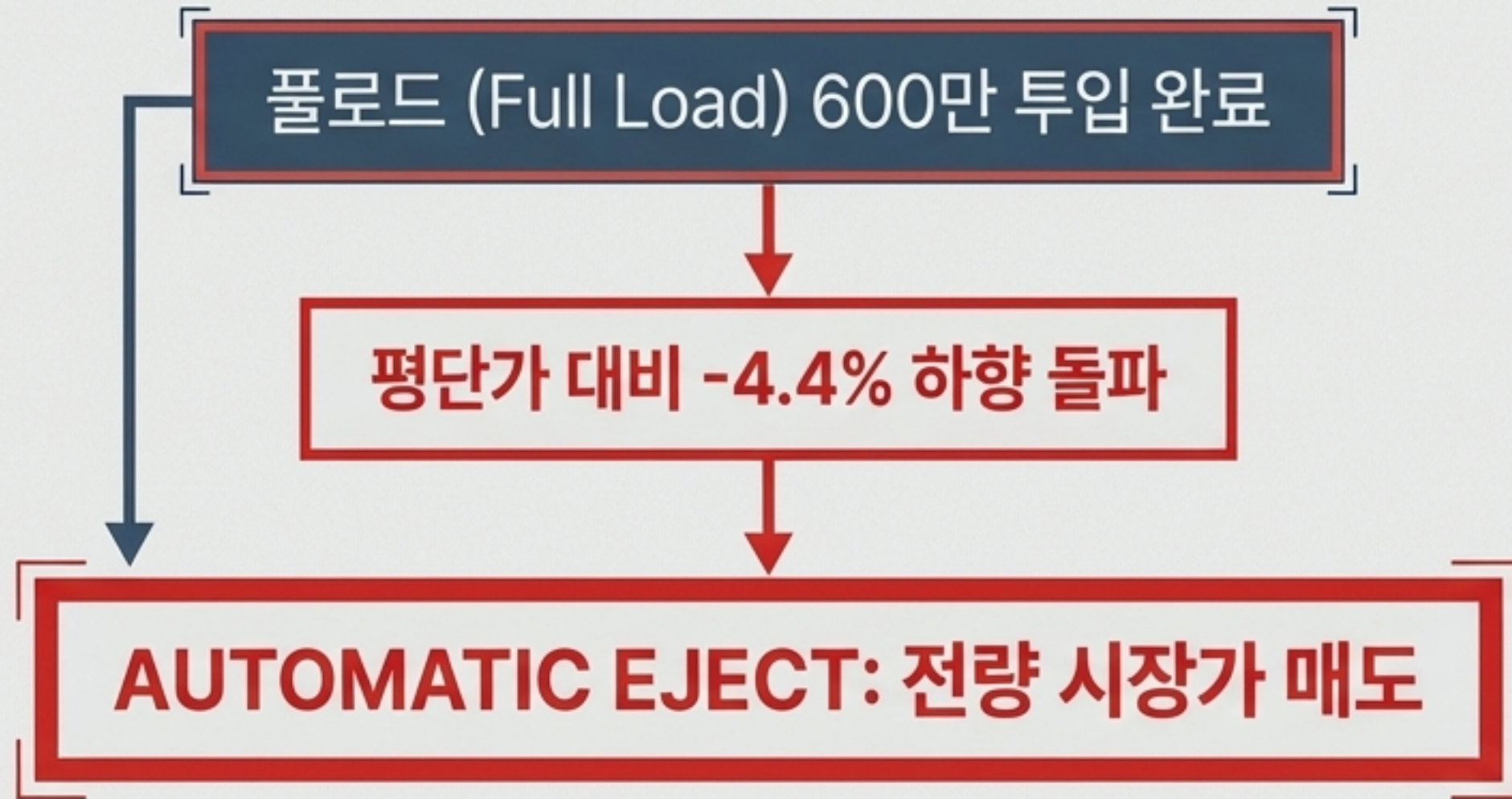


투입 화력: 300만 원 (최대 화력)

전술 상황: 안전 고도를 위협하는 마지노선 코앞까지 다가온 근접전.

목적: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지선에서 남은 최대 화력을 쏟아부어 손익 단가를 완벽하게 맞춘다.
이후 급상승 시 전리품을 챙겨 미련 없이 RTB(귀환)한다.

비상 프로토콜: 기계적 이젝션 시트 (-4.4% 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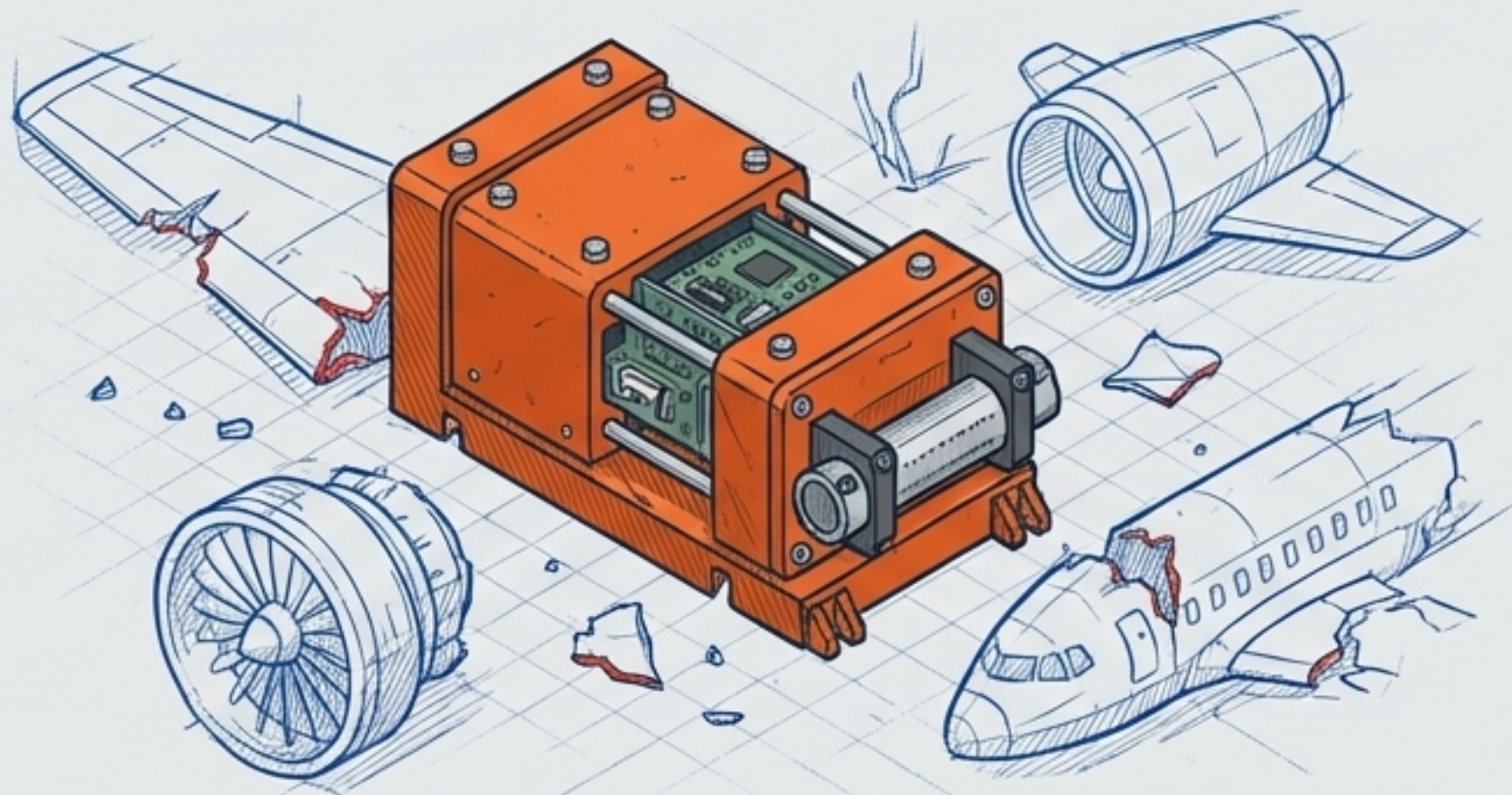


CLASSIFIED

공포의 통제: 플로드 상태에서 손실에 대한 공포는 파일럿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도 매매를 유발한다.

주식 자동 감시 주문: 인간의 나약한 의지가 아닌 냉정한 '기계'에 생존을 맡겨라. -4.4% 도달 시 기체가 자동 탈출시킨다. 기체는 잃어도 파일럿은 살아야 한다.

비행 후 복기: 블랙박스(매매일지) 분석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면, 왜 추락했거나 왜 승리했는지 비행 기록을 뜯어보라. 복기하지 않는 파일럿에게 내일은 없다.

CLASSIFIED

T-600 POST-FLIGHT CHECKLIST

- 식스뷰(Six-View)
6가지 관점을 모두 확인했는가?
- 당일 거시적 작전명(시황/날씨)을
파악하고 진입했는가?
- 껍데기만 요란한 종이비행기
(단순 거래량)에 속지 않았는가?
- 내가 잡은 적토마는 동료
편대(테마)를 이루고 있었는가?

에필로그: 감정을 지운 파일럿



시장은 희망, 탐욕, 공포라는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붉고 푸른 숫자에 심장 박동을 내어주지 마라. 오직 '식스뷰'와 '시스템' 계기판만을 믿고 기계처럼 방아쇠를 당길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는 도박꾼에서 완벽한 '트레이딩 파일럿'으로 거듭난다.

출격 준비 완료 (Ready for Takeoff)